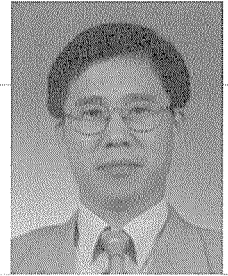


국가지식발전소인 각종 도서관에 활력을 주어야 한다



오 경 목*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정보입수 채널이 되었다. 이들 매체가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일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정보매체의 사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유통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우리들은 상업화된 대중문화의 흐름 속에 아무런 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정보에 무책임하게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분석력·창의력 등이 경쟁국가에 비해 크게 떨어져서, 지식정보사회로 일컬어지는 21세기 지식강국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광고주의 요구에 따라 고품질 정보원을 제공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다수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오락이나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소개할 수 밖에 없다. 점점 선정적이고 폭력적 내용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늘어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충동적 메시지의 전이가 인터넷 매체에서도 나타나 인터넷을 통한 게임 중독, 채팅, 선정정보 유포 등이 확산되어 사회발전의 기반통로로 이용되어져야 할 장치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학습정보를, 직장인들에게는 전문지식 정보를, 주부 등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여 그들로부터 미래 발전을 위한 생산성이 있는 고품질 지식정보창출로 연계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가 성장하는 유기체로서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좋은 정보가 사회 도처에서 유통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고급정보의 재생산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진정 앞으로의 시대가 지식이 제4의 경제기반으로서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또한, 앞으로의 사회가 지식을 기반으로 각종 경제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국제적 변화를 인정한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국가의 지식 인프라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지난 정부에서는 국가정보화 사업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하였다. 특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투자원칙을 세워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다. 진정한 지식강국은 하드시스템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시설의 확충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컴퓨터 등 정보미디어 소유 자체가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화관광부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 kmoh@sookmyung.ac.kr

좋은 지식정보를 갖춘 것이라고 보면 큰 오해라고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지식을 갖춘 인간의 노력으로 정보분석을 통해 가치를 부여했을 때 진정한 지식으로 생산되어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이 생산 소비되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지식의 생명주기 현상에서 볼 때 지식생산에 대한 소프트시스템적인 국가적 인프라 구축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과 같이 생산성 없는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유통된다면 생산되는 정보 역시 저급한 정보만이 생산되어 정보사이클 내에서 계속적으로 해악적인 존재가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가치있는 정보창출의 기반시설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을 보는 시각이 변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평생 학습이 요구되는 지식정보 시대를 맞아 사내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등 각종 온라인·오프라인 교육기관이 생겨 지식정보를 전수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도서관은 시민들 각자의 수준에 따라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자습대학”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이미 실현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기반시설이다. 지식생산자가 원하는 주제에 따라 자료를 입수해서 소화한 후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지식사회에 생산성을 지원해주는 인적·물적 자원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제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강철왕 카네기는 “자습대학”인 도서관을 이용하여 성공한 후 이에 대한 보답으로 2,000개 이상의 도서관을 영국, 미국에 설치해 지식 인프라로서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심어주었다. 100여 년 후 빌 게이츠가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성공에 밑거름이 된 도서관의 가치를 간증한 것은 빌 게이츠 뿐 만 아니라 지식강국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공한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지식발전 기반시설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 주변에는 대학도서관, 초·중·고 학교도서관, 기업체 정보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도서관이 문화와 지식을 창출하는 기반시설로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의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좀더 집중적인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에 자극을 주고자 어린이도서관·진중도서관 건립운동을 벌이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민간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한 지식강국·문화강국이 되려면 도서관이 정보센터로서 지식정보 제공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새로운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2500년전 그리스 작가인 에스킬러스(Aeschylus)가 남긴 “많은 것을 알기보다는 유용한 것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명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 오늘날 정보홍수시대에 더욱 절실하다. 유용성을 가리지 않고 각종 매체에서 쏟아지는 비생산적, 비경제적 정보를 도처에서 운명적으로 접하게 되는 현실에서, 우리 한국사회에 긴요한 시설인 도서관에 대한 역할과 필요성을 말해주는 명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문화·지식 분야의 정책입안자들이 각종도서관이 우리사회의 진정한 국가지식발전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는 다른, 파격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한가로운 시간에 취미로나 독서하는 곳이 아니라 지식정보시대에 지식을 축적하고 이용하여 전국민이 값진 지식을 골고루 나누어, 가치있는 지식정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지식경쟁시대가 다가 왔기 때문이다. 